



준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태안 바닷가의 민심

2008년 7월 어느 날, 작렬하는 태양 아래 빛나는 태안반도 만리포 앞바다는 블루오션(Blue ocean)이었다. 조개껍질 쪼는 사람, 해수욕 하는 사람과 널린 그물에서 맥이를 뒤지는 갈매기를 보면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다.

6월 27일 천신만고 끝에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됐다. 겨우 내 찬바람 맞으며 1만 5000톤의 기름을 견어낸 자원봉사자 덕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직접 자원봉사에 나섰을 만큼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도 가득했다. 불교계에서는 태안 바다 살리기와 함께 성금도 모아 전달했다.

6월 15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태안지역사암연합회의 도움으로 1억3000만원을 장학금과 피해복구기금으로 나눠 400여명의 태안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귀한 불자들의 보시금이 가구별로 30만원 혹은 37만원씩 전달된 후 뒷부분의 문제가 생겼다.

지역스님들에 따르면 "옆집은 성금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애가 없는 것으로 해서 장학금 말고 금액이 큰 피해 복구기금을 달라"는 등의 항의 성 전화에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돈 못 받아 개종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물론 대다수 주민들은 감사히 성

금을 받았을 것이다. <화엄경> '이세간품'에는 ▲평등한 보시 ▲자기 뜻에 의한 보시 ▲산란심 없는 보시 ▲받을 이를 헤아린 보시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 보시 ▲한결 같은 보시 ▲마음과 물질이 하나 된 보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보시 ▲중생을 교화하는 보시 ▲보시자와 보시 받는 이, 보시 물이 원만하고 청정한 보시 등을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보시로 나열했다. 불교계의 보시 정신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음' 보다 '물질'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던가 보다.

6월 31일 5000여명의 개신교 봉사단은 태안 곳곳에 걸린 "한국 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플래카드처럼 태안 주민들과 함께 있었다. "다시 서는 서해안 만들기-위로와 소망의 날" 행사를 열고 그들만의 디아코니아(나눔)를 실천하기 위해 속삭이듯 하며 태안 민심을 달랬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만리포에서는 수척사 스님들이 기름유출로 죽어간 수많은 미물 등 유주무주 고혼들의 천도 수륙용왕대제를 봉행했으나, 중생은 보이는 것만 믿기 마련이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스님들이 천도재로 영가를 제도했다면 이제는 재가불자들이 태안지역을 찾아 산 중생을 위해 보시할 차례다.

판사님 '문화재보호법' 모르시나요?

동두천 주민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訴'

의정부 지법 "관람료 징수 부당" 판결에 조계종·사찰 반발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조계종과 해당 사찰이 관람료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발단은 동두천 주민 15명이 지난해 5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인 동두천 자재암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의정부지법은 6월 4일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도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찰(자재암)이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안 내면 등을 통해 동두천 시민은 요금 면제 대상인 점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봉선사와 말사인 소요산 자재암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한 관람료 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선사와 자재암은 7월 8일 발표 한 입장문을 통해 "소요산의 95% 내외를 통해 동두천 시민은 요금 면제 대상인 점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봉선사와 말사인 소요산 자재암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한 관람료 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선사와 자재암은 7월 8일 발표 한 입장문을 통해 "소요산의 95% 내외를 통해 동두천 시민은 요금 면제 대상인 점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다"고 지적했다. 두 사찰은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 홍보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동두천시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재암은 12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와의 관리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1000원으로 하향해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 단독재판부는 6월 4일, 경기도 동두천주민 15명이 소요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관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성우 기자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문 활짝

2년 3개월만에 공사 완료...고아 보육시설·유치원 등 조성

조계종의 첫 해외 복지시설인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이 2년 3개월여의 공사 끝에 문을 열었다. 조계종과 스리랑카 정부는 7월 8일 스리랑카 갈파 지방 파살라 현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명선·해승 스님,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복지타운 개관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지진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한 한국 불교계의 회사가 오늘의 희망을 낳았다"며 "스리랑카는 물론 세계불교 유대가 강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타운 운영사찰로 지정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조계종은 지난 2004년 12월 발생한 쓰나미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갔다"며 "개관행사를 시작으로 부처님의 자비실현을 이곳에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복지타운은 8만2천500㎡의 부지에 60여명의 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건물 5개동과 유치원 1개동, 행정동, 직원숙소 등으로 조성됐다.



7월 8일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개관식을 가진 한국 및 스리랑카 스님과 고아들. (사진=공동취재단)

포교원, 소규모사찰 연합캠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불교학교나 여름캠프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찰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연꽃어린이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의 후원으로 7월 23일부터 29

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어린이 100여명씩이 참석할 수 있는 '2008 연꽃 어린이 연합캠프'를 갖는다. 충북 괴산군 청전면 다보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이면 참가할 수 있다. (02)738-7860 김성우 기자

천태종, 영통사서 백중 천도법회

성지순례 정례회 추진

천태종이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백중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영통사 성지순례의 정례회를 추진 중이다. 천태종 나누며나뉘기운동본부 "현대아산과 8월 13일 개성 영통사에서 백중천도법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통사 천도법회 참가규모는 최대

500여명으로 참가신청은 천태종 종단 홈페이지(www.cheontae.org)를 통해 7월 25일까지 가능하다고 운동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백중 법회 이후인 9월부터는 매달 한차례씩 영통사 성지순례를 정례화하기 위해 현대아산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02)730-2401 김성우 기자

법타 스님 공권정지 2년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에게 초심호계원이 공권정지 2년을 판결했다. 초심호계원은 7월 8일 제59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호법부로부터 징계가 회부된 사건 14건, 스님 14명에 대해 판결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관련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호법부로부터 공권정지 3년을 구형받은 법타 스님은 공권정지 2년의 판결이 결정됐다. 법타 스님은 30일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은해사 주지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동환**(前 KBS/동아TV/영광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이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침술,기공,최면,빙의,퇴마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예약은 사전 7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1기 단전호흡·명상·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ANGSA24.ORG

